

■ 제주 마을-참여와 자치의 기록 〈7〉 마을 자원을 경쟁력으로

마을 기반 공동체 강화·일자리 창출 얼마나

마을만들기류 사업 확장성·시설 활용 정도 살펴야
마을기업 지정 41곳 지역과 동반 성장 기회 확대를

봄날 들녘을 뒤덮었던 하이얀 메밀 꽃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메밀은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어서 10월이 되면 지난 5월에 연출됐던 장관이 다시 그곳에 펼쳐질 것이다. 제주시 조천읍의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의 ‘와흘메밀마을 체험힐링센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가동 중인 체험힐링센터는 마을목장 부지에 조성됐다. 메밀꽃 필 무렵이 되면 하루 5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는다. 지금은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마을을 가꾸려는 작업들이 있다.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마을만들기,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이 그런 예다.

와흘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성과를 공유하는 행복농촌 만들기(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제주도 예선과 전국 본선에 몇 차례 참가한 이

력이 있다. 2015년(2회), 2019년(6회)에는 본선에서 입선했다. 올해는 소득·체험 분야에서 최우수마을로 뽑혀 성읍1리(문화·복지 분야), 오조리(경관·환경 분야)와 함께 전국 무대로 향한다.

체험힐링센터 운영을 맡은 곳은 와흘메밀마을협의회로 주민 80명이 참여해 출범한 조직이다. 숙박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체 화합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이용한 수익 사업에 방점을 찍는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3차년도까지 총 1억원의 사업비(보조금의 20% 이상은 자부담)가 지원된다.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과 함께 기업성이 주요 지정 요건 중 하나다.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월 현재 제주지역 마을기업은 41개소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와흘메밀마을 체험힐링센터. 와흘리는 올해 행복농촌 만들기 제주 예선 최우수마을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제주시 20, 서귀포시 21)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마을기업은 지정된 지 12년이 넘었다. 업종별로는 농산물·전통식품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관광체험 8개소, 의류재활용 1개소다.

읍·면·동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등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지만 업체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 지역 사회 공헌, 상생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마을기업 출자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청년 인구 유입 등 청년 마을기업 육성도 또 다른 과제다.

정부정책으로 시작돼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밑거름으로 꾸려온 마을만들기, 마을기업은 지속성이 관건이다. 그동안 마을만들기류 사업으로 곳곳에 세워졌던 시설 중에 가동을 멈춘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입상했던 마을들이 해당 분야에서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엔 마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마을 리더를 넘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 얼마나 신뢰감을 쌓으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때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년층 1인 가구 위험군 285명 발굴

제주시 상반기 조사 결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추진

제주시가 지난 5~6월 2개월 동안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8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혼, 이혼, 실직 등의 사유로 혼자 사는 장년층 가구 중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상반기 중 만 50세

에 해당하는 1972년 1월 1~6월 30일 출생자, 2021년 10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5세 미만자, 2021년 하반기 조사 시 미조사된 가구 등 총 3336명이었다. 이 중에서 총 285명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위험군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경우엔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로 했다. 진선희기자



“싱싱한 자리돔 사세요” 6일 서귀포시 보목동 포구에서는 제주의 대표 어종으로 입맛을 돋우는 싱싱한 자리돔을 손질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만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 도민 고충처리 본격

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시행

민선8기 제주도정이 시민 고충 민원 해결에 본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달 30일 제정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대변할 공식기구가 생긴 만큼 민원 처리에 대한 도민 만족도 향상과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위원회 구성은 8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저소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100만원으로 확대

제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 진료비를 올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산·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를 단태아 70만원, 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선희기자

양자강 유출량 증가… 제주바다 유입 우려

평년 대비 17% 증가… 초당 5만4000t 넘어서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증가해 제주바다에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양자강 하구 대통(大通) 지역 유출량 모니터링 결과, 이달 2일 기준 평년 초당 4만 6000t 대비 약 17% 늘어난 초당 5만 4t000t 유출이 확인됐다.

고수온·저염분수 예측모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남쪽

약 150km 떨어진 이어도 기지 부근에서 저염분수 수괴(물덩어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분산돼 제주 연안까지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양자강 유출량은 7~8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출량 급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양수산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여름철은 평년 대비

1.0℃ 높은 수온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0.5~1.0℃ 높은 표층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자강 저염분수는 고수온을 동반하면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비상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예찰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역예찰조사를 통해 제주 서남부 100~150km 해역인 이어도 부근에서 정점별로 수온·염분을 관측하고, 7월 중순부터 무인해양관측장비를 활용해 관측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3cm

폭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운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능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홍진, 카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 (신규전 09-02-2009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탐빛1호, 선강,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